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 비로소 알게 된 것

바닷가 암자에 오르니 멀리 바다가 보인다. 쏟아진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작은 섬 하나는 오래된 기억처럼 떠있다. 묵언을 한다한들 저 바다만 할까. 가부좌를 튼다한들 저 섬만 할까. 그렇게 보니 너와 나는 오래 된 것도 아니다. 너와 나는 하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다. 깊이를 보여주지 않는 바다와 온 종일 일어서지 않는 작은 섬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너와 나는 있는 것도 아니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내 이름은 이필구 ㊦

#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마음먹기 '나름'

주영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이필구. 난 네가 그 별명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 내가 실패한 뜀틀을 네가 가뿐하게 넘어서 질투심이 좀 난 것 같아."

필구는 주영이가 내민 손을 마주 잡았다. 화가 가라앉고 난 후 주영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사과하면 주영이가 받아줄지 걱정이었다. 주영이가 먼저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마웠다.

"미안하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때린 건 정말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선생님이 필구와 주영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별명은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친구의 기분도 헤아려 줘야 해. 화가 났다고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잘못이고. 진심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너희들이 친구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필구는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서로 별명을 부르는 데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 그냥 재미로 그렇게 부른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났고, 화를 참지 못했다.

'이게 다 이름 때문이야.'

이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필구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과 우진이는 법회에 참석하고, 필구는 암자로 올라와 우송 스님을 뵈었다. 지난 겨울 동안거 들어가시기 전에 인사드렸으니 거의 1년 만에 뵙는 거였다. 그동안 스님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한데, 표정은 점점 동자승처럼 변했다. 때로는 해맑았고, 때로는 짓궂었다.

묵향이 은은했다. 필구는 다소곳이 앉아서 먹을 갈았다. 앉은뱅이 탁자 위에 화선지를 펼쳐놓고 시를 쓰신다기에 필구가 먹을 갈겠다고 나섰다.

"스님, 먹을 다 갈았습니다."

"아직 묽구나. 조금 더 갈아야겠다."

늦가을 공기가 차가운데 스님은 창을 활짝 열어놓고, 차를 홀짝이면서 멀리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먹물도 보시지 않고, 붓을 적신 것도 아닌데 먹물이 된지 묽은지 어떻게 아세요?"

"향으로 알지."

먹물은 핑계인지도 모른다. 시심은 스님의 시선을 따라 멀리 달아나 버린 것 같았다.

"저기 저 등성이에 삐죽하게 튀어나온 소나무가 보이느냐? 다른 소나무들은 다 남쪽을 향해 자라는데 저 소나무만 북쪽을 향하고 있지. 바람과 햇빛을 거슬러 있으니 밑동이 가늘고 삐뚤빼뚤 참 못난 소나무로 자랐어. 내가 머리를 깎던 날 은사 스님께서 저 소나무를 가리키며 우송(愚松)이라고 하셨단다. 그러시곤 내게 우송이라는 법명을 내리셨지. 어리석은 소나무라니, 나는 대번에 그 이름이 싫었단다. 너도 잘 알겠지만 내가 여간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 않으냐. 학교에 다닐 때는 1등을 놓친 법이 없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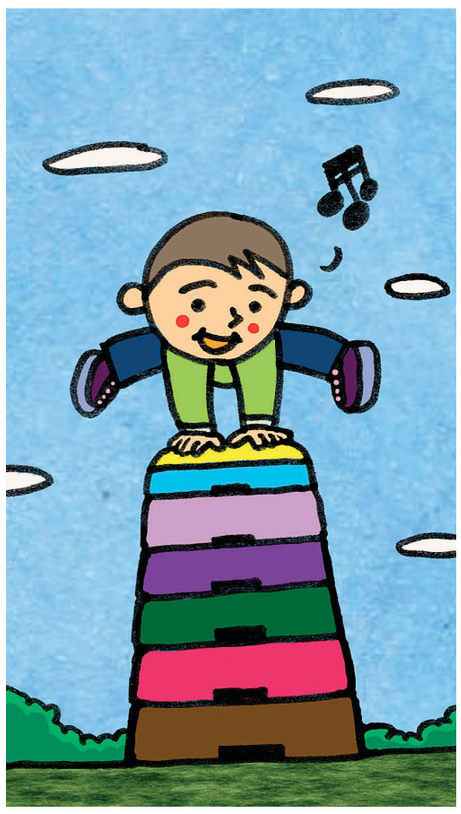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필구는 몰래 한숨을 쉬었다. 슬슬 스님의 주특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스님의 주특기는 딴죽 치기와 자기 자랑이었다. 필구의 이름을 바꿔 달랬더니 자신의 이름 얘기나 하시고, 어물쩍 자기 자랑으로 넘어갔다.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법명을 내리신 은사님의 뜻을 말이다. 어떤 때에는 역설인가 싶다가도 다시 생각해 보면 직설인 것 같기도 하고, 잘나도 너무 잘난 놈이라 하심을 배우라는 뜻인가 싶다가도 조롱인 것 같기도 하고. 절 마당 건너편에 저리 딱 버티고 서 있으니 좋든 싫든 매일 저 소나무를 볼 수밖에 없었단다. 어떤 날은 참 못나 보이고, 어떤 날은 초라해 보였지.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꽤 그럴싸해 보이고, 어떤 날은 구불구불한 줄기며 듬성듬성한 솔잎이 운치 있어 보였지."

"오늘은 어떠세요? 멋진가요? 아니면 추한가요?"

"멋지지도 추하지도 않단다. 그냥 소나무일 뿐이거든. 저기에 우송이라는 이름을 붙이니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 소나무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소나무를 바라보는 내 감정과 관점이 변했던 거지. 저 소나무에 잣나무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저것은 그냥 소나무일 뿐이란다. 잣나무라 부른다고 솔방울에서 잣이 열리지는 않는단다. 필구 너에게서는 돌돌돌 맑은 여울 소리가 들리지. 그건 너의 이름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다. 너의 성품, 너의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지."

스님은 식어버린 찻물로 목을 축이고, 붓을 들었다. 붓을 들기까지는 하염없이 뜸을 들여도 붓을 들고 나면 거침이 없었다. 춤을 추듯 붓이 머물다 지나간 자리에는 힘차면서도 부드럽고, 유려하면서도 소박한 일곱 글자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소대청산 산역소(笑對靑山 山亦笑).

"푸른 산을 보며 웃었더니 산 또한 웃더라. 무상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내가 바쁘면 세상이 바쁘고, 내가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깨달음도 그렇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온 우주가 눈을 뜨고, 내가 눈을 감으면 온 우주가 눈을 감는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글이니 가져다가 붙여놓든 엿을 바꿔 먹든 네 마음대로 하려무나."

수업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선생님은 별명 대신 원하는 직업으로 서로 불러주자고 하셨다. 마리아는 최검사가 되었다. 오궁은 닥터최가 되었다. 나무늘보는 정선생, 홍마담은 홍작가, 묵은지는 김화백, 원숭이는 최순경이 되었다. 찌질이는 이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진희의 꿈은 농부가 되는 것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시골에서 노인 분들을 도와 농사를 지으며 그 마을 최초의 여자 이장이 되겠다고 했다.

미래에 어떤 아이들은 별명이 직업이 되어있을 것이다. 또 어떤 아이들은 별명과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은 새로운 별명을 무척 좋아했다. 친구의 별명을 부르는 것도 자신의 별명을 듣는 것도 모두 신나고 재미있었다.

6단으로 올라간 뜀틀은 까마득하게 높아 보였다. 필구는 숨을 후후 몰아쉬며 발목을 빙글빙글 돌렸다. 그동안 멀쩡하게 걷고 뛰고 했는데 뜀틀 앞에 서니 삐끗한 발목이 다시 콕콕 쑤시는 것 같았다.

"이선수! 파이팅!"

아이들이 소리쳤다. 필구는 아이들을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아이들이 웃었다. 푸른 산들이 웃었다. 필구는 힘차게 구르기 판을 굴렀다. 필구의 몸이 가볍게 날아올랐다. 〈끝〉